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은행권, 헝가리 은행세에 대한 우려 표명

- 유럽은행권은 헝가리 신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부과할 은행세는 과중한 측면이 있으며, 궁극적으로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.
  - 헝가리 신정부는 3.8%의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, 보험회사, 기타 금융기관들로부터 금년 중 8억5천5백만 달러의 은행세를 거둬들일 계획이며, 내년에도 동일 규모의 은행세를 거둬들일 예정이라고 밝힘.
  - 그러나 유럽은행들은 헝가리 은행들에 부과될 5억1천3백만 달러의 은행세(금융권 전체 은행세 중 60%에 해당)는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본적정성을 취약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은행세를 도입한다면 다국적 은행들의 은행세는 중복해서 지불될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함.
  
- 헝가리의 은행세 도입은 IMF가 지원하는 2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과 외국은행의 헝가리 국채 보유에 대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국내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 은행세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.
  - 금번 재정적자의 원인이 국내 은행들의 무리한 외평채 발행에 있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신정부의 은행세 도입이 2/3의 국회 지지를 받음으로써 헝가리 국내은행들의 반발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
  
- 블룸버그는 헝가리의 은행자산 대비 0.6% 은행세 도입은 독일, 프랑스, 영국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 등의 유로지역과 미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세는 향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논평함.
  - 미국은 ‘은행자산-소매예금’ 대비 0.15%를 부과하여 향후 10년간 900억달러의 은행세를 거둬들일 계획이며, 영국은 2010년에는 자산대비 0.04%를 부과하여 20억파운드 이상의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2011년에는 세율을 0.07%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.
  - 그러나 일본과 캐나다는 이와 같은 은행세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.  
(Financial Times 7/5, Bloomberg 7/5)